KiRi Weekly 2012.1.30

해외금융 뉴스

일본

손보재팬과 니혼코아 합병으로 일본 최대 손보사 탄생 예정

이상우 선임연구원

■ 일본의 NKSJ홀딩스는 손해보험업계 2위 업체인 손보재팬과 5위 업체인 니혼코아손해보험이 2014년 상반기를 목표로 합병할 계획이라고 발표함.

- 손보재팬(Sonpo Japan)과 니혼코아(日本興亜)손해보험은 일본의 보험그룹인 NKSJ홀딩스 산하 핵심적인 손해보험 자회사로 2014년 상반기 중 합병할 경우 현재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을 제치고 일본 내 최대 규모의 손해보험회사가 될 예정임.
- 손보재팬은 야스다(安田)화재와 닛산(日産)화재, 대성(大成)화재가 2002년 합병한 회사로 수입보험료가 2010년 말 기준 1조 2,566억 엔(2위)에 달하며, 산하에 각각 생명보험회사, 손해보험회사, 온라인 자동차보험회사,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일본 내 24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한 보험그룹임.
- 니혼코아손해보험은 니혼(日本)화재와 코아(興亜)화재, 타이요(太陽)화재가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합병한 회사로 2010년 말 기준 수입보험료가 6,206억 엔(5위)이며, 산하에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국내외 23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한 보험그룹임.

■ 손보재팬은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2009년 니혼코아손해보험그룹과 함께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조건으로 경영통합에 합의하였으며, 이에 따라 2010년 NKSJ홀딩스가 설립됨.

- 현재 NKSJ홀딩스의 대주주인 손보재팬그룹과 니혼코아손보그룹이 각각 2010년 이후 경영자원 재배치를 통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회사 간 경영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양 보험회사가 합병하게 됨.
- 현재 NKSJ홀딩스는 산하에 손보재팬, 니혼코아손보, 세존자동차보험, 손보24, 손보재팬생명, 니혼코아생명, 손보재팬DIY생명, 기타 5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대형화, 겸업화, 시장 세분화,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.

■ 최근 일본의 보험업계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리스크 세분화, 온라인 판매 확대,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.

- 특히 대형사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이후 지속적으로 M&A를 통하여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그룹 내 관계회사 간 상품개발, 판매채널, 자산운용, 고객정보, 해외시장 정보 등의 경영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음.
- 아울러 향후 성장 전망이 좋은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한편, 최근 엔고 현상을 적극 활용하여 현지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등 유럽과 미주 보험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.

(니혼게이자이신문, 요미우리신문 1/25 등 종합)